



월드컵 중계의 전설 SBS 출정을 알리다!

월드컵채널SBS '2014 브라질월드컵 기자간담회' 개최



5월 30일(금)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2014 브라질월드컵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범근 해설위원, 차두리 해설위원과 박문성, 장지현, 김동완 해설위원이 참석하였고, 배성재 캐스터와 김일중 캐스터 외에 조민호, 정우영, 이재형 캐스터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김유석 SBS월드컵 방송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SBS 스포츠 중계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타사를 압도하는 시청률 우위를 보이는 등 화제를 모았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역시 빅이벤트 중계는 SBS가 최고라고 할 만큼 많은

준비를 했다. 다각적인 경기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며 SBS월드컵 중계의 성공을 자신했다.



축구를 축구답게! SBS월드컵 중계의 앞서가는 노하우

◇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캐스터와 해설진 구축

인지도와 선호도에서 1위인 차범근-배성재 콤비로 한국 경기 등 주요 경기를 중계하고, EPL 중계를 통해 검증된 전문 캐스터와 해설진을 투입하였다.

◇ 현장 중심, 축구 경기 중심의 프리쇼 제작

방송 3사 중 유일하게 브라질 리우 IBC 스튜디오와 한국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에서 경기 프리쇼를 진행하고, 현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단 뉴스바와 하단 애니메이션 CG등을 활용하여 경기 관련 실시간 뉴스와 관련 데이터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의 재구성과 시청자 참여 중심의 포스트쇼 제작

월드컵 주관 방송사가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골 장면과 키 플레이어를 중계와 다른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차별화한다. 또 2010년 남아

공월드컵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석자평'을 발전시켜, 시청자가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석자평'을 제작한다. 그 외에 버추얼그래픽 장비를 사용하여 해설자가 직접 경기장 위에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는 영상물도 준비하였다.

◇ 해외 레전드들의 국가별 분석 인터뷰 구성

차범근 위원이 만난 유럽 축구 레전드들이 분석하는 대한민국 상대팀 및 주요 경기 전망들을 관전 포인트로 제작하여 경기 프리쇼 아이템으로 활용한다. 또, EPL 중계를 통해 호평 받았던 해외 축구 제작진이 대거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재치 있는 제작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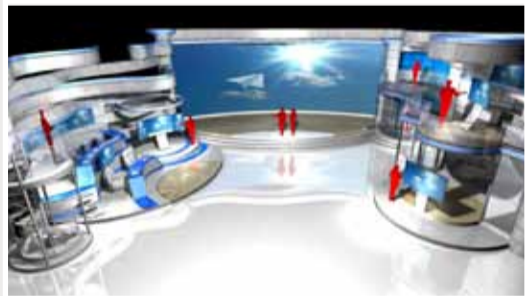
비교를 거부하는 선거방송의 신기원

2014

국민의 선택

‘SBS 2014 국민의 선택’ 6.4 지방선거방송 기자간담회

2012년 총선과 대선 방송에서 차별화된 그래픽과 아이디어로 큰 화제를 모았던 SBS 선거방송이 2014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간다. 지난 5월 27일(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된 SBS 6.4 지방선거 기자간담회에서, SBS 선거방송기획팀은 타 방송사를 압도할 선거방송을 예고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앵커를 맡은 보도본부 편집1부 김성준 부장과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박선영 아나운서, 보도본부 선거방송기획팀 임광기 팀장과 함께 SBS 선거방송에 출연하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이 참석하여 이번 선거방송의 주요 특징과 출연 소감을 밝혔다. 임광기 팀장은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같은 수치라도 지루하지 않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컴퓨터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일방적인 투개표 방송에서 벗어나, 선거부터 개표까지 시청자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시청자들에게 의미와 재미를 한꺼번에 드리는 소중한 선거방송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이준석 전 위원과 정은혜 부대변인은 지난 SBS 선거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과 장점들을 언급하며 6.4 지방선거 방송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준석 전 위원과 정은혜 부대변인은 지난 SBS 선거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과 장점들을 언급하며 6.4 지방선거 방송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SBS 6.4 지방선거방송의 주요 특징

1. 선거방송의 모토는 ‘재도약’, ‘비상’

세월호의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시점에서, 이제는 이 아픔을 딛고 선거를 통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재도약’, ‘비상’으로 선정하였다.

2. 시청자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 바이폰’ 준비

2012년 총선 때 SBS가 첫 선을 보인 이후 선거방송의 대세로 자리잡은 ‘테마 바이폰’을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 제작하였다. 투표 당일 오전 7시부터 하단 바이폰을 전면 운행하고, 메인 바이폰은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교육감, 화제후보 관심지역을 집중 조명하는 등 단순히 개표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볼거리로 시청의 즐거움까지 더하는 선거방송을 준비하였다.

3. 시청자와 함께 하는 선거방송, ‘투표할게요’ 캠페인

시청자들이 참여한 ‘투표할게요’ 캠페인 외에 사전투표 기간부터 ‘투표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SNS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페이스북 상에서 두 젊은 정치인인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정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선거와 관련해 토론을 벌이고 Q&A도 주고받는 ‘선거수다’ 코너를 운영하여 방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그맨 서경석이 SBS캐릭터 ‘고미’가 그려진 승합차를 타고 선거 당일에 유권자를 찾아가 민심을 직접 들어보는 ‘민심 토크’ 코너를 운영한다.

4.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SBS 예측판정단 별도 구성

이번에도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협의체인 KEP(Korea Election Pool)를 통해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선거가 끝나는 6시 직후 발표한다. 이 때 SBS는 예측판정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개표시 유력, 확실, 당선을 발빠르게 전달할 계획이다.

5. 17개 광역장과 교육감 정치이념지수 표출

SBS는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정치이념을 사전 조사해, 선거 당일 개표정보와 함께 표출함으로써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K팝스타 3〉 TOP 10멤버, SBS 지방선거방송 캠페인송 참여

2014년 SBS 6.4 지방선거방송 캠페인송 ‘투표해요’가 〈K팝스타 3〉 TOP 10 멤버들의 참여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SBS 선거 캠페인송 ‘투표해요’는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K팝스타 3〉 우승자인 버나드 박을 비롯해 샘 김, 권진아, 짜리몽땅, 알맹, 썸뽕, 남영주 등 총 7팀 11명이 참여하였다.





‘공공선’, SDF에서 날개를 달다

서울디지털포럼 2014, 최다 관객 참석 기록 등 성황리에 종료

‘SDF시즌Ⅱ’의 문을 여는 제11회 서울디지털포럼(SDF) “혁신적 지혜-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가 지난 21일과 22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역대 최대인 연인원 3천여 명의 국내외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용모 SBS 대표이사 사장의 개막사로 문을 연 SDF 2014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사고’같은 가슴 아픈 경험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과학기술과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도 축사에서 방통위도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꼭 필요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UHD 방송서비스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디지털 기술이 부어한 숙제를 해소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동안 열린 SDF 2014에 직접 행사장을 찾은 많은 참석자들은 물론 PC와 모바일로도 11만 명 이상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돼 SDF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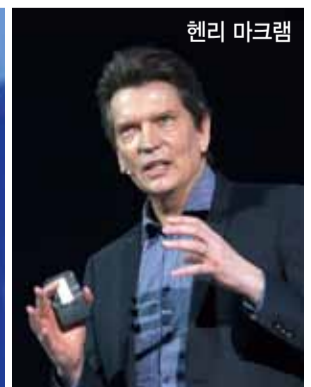
48명의 저명한 국내외 연사들은 디지털 시대의 혁신뿐 아니라 혁신이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참석자,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 큰 호응을 받았다.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자적 인터넷을 개발한 첫날 기조연설자 전길남 박사는 “2013년 현재 27억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7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집단지성을 통



해 외국어를 무료로 학습하는 어플리케이션 ‘듀오링고’의 대표 루이스 폰 안은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라 밝혀 올해 SDF의 주제 ‘공공선’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임을 환기시켜주었다. 둘째 날 기조연사인 BBC 드라마 ‘셜록’의 제작자 스티브 모팻 부부도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혁신’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셜록’이 전세계 234개 지역에 팔릴 수 있었던 이유도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의 힘을 강조했다. 때문이라고 밝혔다.

메인 세션 외에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게임 病, 그리고 사회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신의진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게임 과몰입’ 관련 해법을 모색하는 심화 세션을 진행했는가 하면 한국방송작가협회와 SBS문화재단

이 개최한 ‘방송작가 마스터 클래스: 성공하는 이야기의 공식’도 방송작가 5백여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주목을 받았다. 또 전세계 16개국의 프로그램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 90여 명이 올해 SDF가 처음으로 유치한 제1회 글로벌 해커톤 ‘善 Challenge’에 참여해 3박4일 동안 치열한 앱 개발 경진대회를 펼친 결과 기차의 연착 등 지역의 교통 상황을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 어플을 만든 호주, 한국, 예멘인으로 구성된 ‘Social Fence’팀이 안행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올해 SDF는 그 어느 해보다 내용이 다양하고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희망TV SBS - 대국민 나눔 프로젝트의 시작

SBS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TV SBS>가 5월 30일(금)~31일(토) 2014년 상반기 방송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2014년 <희망TV SBS>는 국내 유명 스타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나눔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즐거운 것임을 알리는 대국민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하는 송윤아가 단독 MC로 진행하는 나눔 토크쇼 <함께>에서는 올 상반기 아프리카에 다녀온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특별한 나눔을 이야기하였다. 이어 송윤아가 직접 지원이 절실한 환아를 만나 아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 '송윤아의 아름다운 동행', SBS라디오 DJ 노사연, 이성미와 배우들이 특별한 감동을 전해준 '함께 보는 희망TV'가 방송되었다.

특히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2014 <희망TV SBS>에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는데, 반 사무총장은 “저는 범세계적인 국민인 당신들 모두를 격려한다. 자국의 국경을 벗어나서 공동의 미래를 위해 기여를 해 달라”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든, 여러분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B1A4가 의기투합하여, <희망TV SBS>를 위해 희망송을 만들었다.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해온 B1A4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서 더욱 뜻깊은 희망송은 2014 <희망TV SBS>를 통해 공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18년 간 소외계층 어린이와 빈곤 국가를 지원해온 <희망TV SBS>는 올해도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헌의 장을 마련하였다.

희망TV SBS 대학생봉사단과 함께하는 'Dream with' 프로젝트

지난 2년간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교육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희망 TV SBS'가 이번엔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능기부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자 마련된 'Dream With' 프로젝트로, 전국 125개 대학생 팀이 지원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최종 21팀이 'Dream with 대학생 봉사단'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봉사단은 5월 30일(금)~31일(토) 한국타이어 금산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발대식 및 봉사활동 교육을 받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적 이슈, 이럴 땐 어떻게? ⑤

온라인 뉴스의 링크설정행위와 저작권

최근 '허핑턴포스트코리아'를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프레임링크를 통하여 타 방송사, 신문사의 온라인 뉴스를 무단 전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사이트를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사와 타사(방송, 신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기사가 혼재되어 있으며, 기사를 클릭하면 상하단과 기사의 중간, 우측에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이는 링크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프레임과 타겟 프레임으로 나눈 뒤 브라우징 프레임에는 자신의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겟 프레임에는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여 마치 웹 이용자의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 전체가 링크제공자의 정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레임링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온라인 뉴스 기사 중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기사, 2) 기자의 사상이나 감상 등이 포함된 기사, 3) 사진이 문제될 수 있는데, 특히 2) 기자의 견해가 포함된 기사와 3)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보이며

로, 이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판결) 그러나 단순 복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프레임링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살펴보면, 링크가 일어나는 기술적인 경로나 형태에 비추어볼 때 링크제공자의 웹사이트에는 어떠한 복제물의 저장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링크 설정자가 뉴스 작성자의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 제공자의 웹사이트에는 어떠한 복제물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링크제공자 자신이 직접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복제이든 링크이든 저작물의 출처표시와 관련하여 링크제공자의 첫 화면에는 기사의 제목만 나열되어 있어서 SBS의 기사라는 출처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다투어 볼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링크제공자가 타사 기사의 중간, 상·하단, 우측에 각종 배너 광고를 걸어 수익을 창출하는 점, 링크로 인해 이용자가 링크된 뉴스 서비스를 링크 제공자의 것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 행위,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SBS의 온라인 뉴스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 링크를 설정하면, 뉴스를 보는 이용자로 하여금 링크제공자가 작성한 뉴스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고 SBS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광고에 노출될 기회를 줄이게 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기획실 정책팀 박진선 변호사

<SBS 8뉴스> 새로워졌다!

통일된 뉴스 디자인, 분석 보도 강화로 업그레이드

5월 19일(월)부터 <SBS 8뉴스>(이하 8뉴스)가 달라졌다. SBS는 '할 말을 하는 깊이 있는 뉴스', '사실을 넘어 진실을 전달하는 뉴스'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통일된 그래픽 모티프를 개발하였다. 핵심 그래픽 모티프는 '프리즘'으로, SBS 뉴스라는 프리즘을 통해 진실을 찾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보도본부 방문신 편집1부장은 "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친절한 해설, 깊이 있는 분석을 강화해 할 말을 하는 깊이 있는 뉴스라는 SBS 뉴스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6월 2일(월) 첫 방송

편견에 맞서는 여섯 남녀의 상큼한 로맨스



인기리에 방송 중인 <잘 키운 딸 하나> 후속으로 평일 저녁 안방극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SBS의 새 일일 연속극 <사랑만 할래>(극본 최윤정 연출 안길호)가 4월 24일(목) 첫 대본리딩에 이어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 임세미, 서하준, 이규한, 남보라 등 신세대 배우들과 길용우, 이응경, 정성모, 송옥숙 등 명품 중견배우들이 출연하는 <사랑만 할래>는 혈육과 입양, 부유와 가난, 연상연하의 편견을 이겨낼 여섯 남녀의 상큼발랄한 로맨스를 따뜻하게 풀어낼 가족드라마로, 5월 28일(수) 제작발표회를 개최하였고 6월 2일(월)부터 매주 월~금 저녁 7시 20분에 방송되고 있다.

가정의 달, 가족을 말하는 SBS드라마

주말극장 <기분 좋은 날> 기자간담회

SBS에서 매주 토~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되고 있는 주말극장 <기분 좋은 날>(극본: 문희정 연출: 홍성창)이 남녀 간의 세대별 사랑과 다양한 가족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호평을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5월 13일(화) 일산제작센터 드라마 연습실에서 <기분 좋은 날>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드라마본부 드라마1EP 김영섭 부국장이 "최근 연속극의 극성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시청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선보이고자 했다."라고 제작의도를 설명하였다. 배우들도 모처럼 따뜻하고 드라마 제목처럼 기분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아침드라마 <나만의 당신> 기자간담회

1월 20일(월) 첫 방송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극의 중반을 넘어선 <나만의 당신>(극본: 마주희 연출: 김정민)이 갈수록 흥미진진한 전개로 눈길을 끌면서 아침드라마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20일(화) 일산제작센터 드라마연습실에서 <나만의 당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연배우 이민영, 정성환, 송재희, 한다민이 참석하여 시청자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성환, 송재희, 한다민이 참석하여 시청자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SBS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매직아이> <백 투 마이 페이스>

네 명의 여성 MC의 거침없는 세상 읽기 <매직아이>

5월 13일(화) 밤 11시 15분에 방송된 <매직아이>는 이효리, 문소리, 홍진경이 MC를 맡아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었고, 임경선 작가가 합류하여 여성 4MC체제로 진행하며 솔직하고 과감한 발언으로 색다른 토크를 선사했다. '혼자 알면 안되는 뉴스'와 김구라, 배성재가 화제의 주인공을 찾아 현장에 출동하여 기습 인터뷰를 하는 '숨은 사람 찾기'로 구성된 <매직아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공감을 높였다.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Make Under 리얼리티 <백 투 마이 페이스>

5월 11일(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백 투 마이 페이스>는 성형 전 얼굴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과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독특한 주제로, 방송 전부터 티저 동영상 조회수가 1만 건을 넘는 등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성형 경험이 있는 박명수, 호란이 MC를 맡아 관심을 끌었고, 외모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자연스러웠던 얼굴을 되찾고 싶은 이들의 복원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SBS프로그램 부분 개편

6월부터 SBS 프로그램이 일부 개편된다. 6월 11일(수)부터 <도시의 법칙>이 첫 방송되고, <매직 아이>는 7월 8일(화) 정규 편성된다. 이에 따라 <오 마이 베이비>는 토요일 오후 5시 15분에 방송되고, <잘 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는 일요일 오전 8시 10분으로,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은 일요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시간대를 이동한다.

호란, 파워FM의 <호란의 파워FM> 진행

그룹 클래지콰이와 이바디에서 활동해온 뮤지션 호란이 5월 19일(월)부터 박은지 후임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파워FM의 <호란의 파워FM> DJ를 맡았다. 호란이 이끌어갈 <호란의 파워FM>은 아침 라디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사내 소식

〈별에서 온 그대〉, 〈그것이 알고 싶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상속자들〉 2014년 ‘백상예술대상’ 수상

지난 5월 27일(화) 개최된 ‘제 5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별에서 온 그대〉의 주연배우 전지현이 TV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TV 교양 부문 작품상을,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주연배우 이보영이 TV 여자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 TV 남자인기상에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 TV 여자인기상에 〈상속자들〉의 박신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는 OST 부문도 수상하여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별에서 온 그대〉 ‘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지난 5월 8일(목)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2014년 2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별에서 온 그대〉(연출: 장태유)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에서 온 그대〉가 신선한 주제를 흥미롭게 담아내어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방송콘텐츠로서 가치를 높인 점을 수상 사유로 밝혔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연출: 허강일, 최성)가 지난 5월 15일(목) 개최된 ‘2014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1998년부터 방송되어 우리 이웃들의 이색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SBS의 장수 프로그램이다.



〈SBS스페셜 - 부모 VS 학부모〉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수상

지난 5월 23일(금) 한국YWCA연합회(이하 YWCA)에서 주최한 ‘제18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에서 신년특집 〈SBS스페셜-부모 VS 학부모〉(연출: 박진홍 이하 부모 VS 학부모)가 대상을 수상했다.



YWCA는 〈부모 VS 학부모〉가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한 발 나아가 부모의 선택을 통해 교육 문제를 돌아본 참신한 기획성과 작품성을 인정하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 민영방송대상’ 시상식

5월 29일(목)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2014 민영방송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민영방송협회 회장(이용모 SBS사장) 인사말에 이어 네트워크상 4개 프로그램, 작품상 5개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에는 JTV(전주방송) 특별기획 3부작 다큐멘터리 〈가출〉이 수상하였다.



‘The Voice of SBS’ 김정일 아나운서 헌액식 개최

라디오본부는 5월 14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11층 라디오센터에서 ‘The Voice of SBS’ 헌액식을 개최하였다. ‘The Voice of SBS’는 10년간 지속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DJ에 대한 헌액식으로,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유영미 차장, 이숙영, 최화정, 김창완, 박소현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헌액식에서는 2004년부터 러브FM에서 〈트로트 하이웨이〉〈김정일의 생생가요〉 등을 진행해온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김정일 부장이 6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철호 라디오센터장, 박종필 라디오지원팀장, 김태욱 아나운서팀장과 라디오본부 제작진, 아나운서팀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심의팀 강부길 부장 정년퇴임식

지난 5월 30일(금) 편성전략본부 리스닝센터 심의팀 강부길 부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강부길 부장은 1991년 5월 SBS에 입사하여 제작본부와 편성본부 외주제작팀을 거쳐 2010년부터 심의팀에서 고충처리인으로 활동, 시청자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여 SBS의 스테이션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룹 소식

SBS CNBC 플라톤아카데미에 5천만 원 기부

SBSCNBC는 5월 12일(월)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인문학자의 연구 활동과 학술 대회 지원 등 인문학 심화와 확산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SBSCNBC는 지난해부터 방송과 인문학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문학, 최고의 공부 Who am I?>를 방송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2014 한국케이블 TV방송대상-PP작품상'을 받은 바 있다.



MEDIACRE8 2014 SBS브라질월드컵 설명회 개최

미디어크리에이트는 5월 19일(월) 롯데호텔에서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2014 SBS브라질월드컵 설명회'를 가졌다. SBS만의 차별화된 월드컵 소개를 통해 콘텐츠 가치 및 판매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광고주와 광고회사 관계자 4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집 기고 | 경영지원본부 송출기술팀 신현범

'KOBA 2014' SBS 전시관 참관기

국내 방송문화의 향상과 영상, 음향, 조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KOBA 2014' (24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이하 KOBA 2014) 전시회가 5월 20일(화)부터 5월 23일(금)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COEX 전시관에서 'Join the UHD World!'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1991년을 원년으로 올해 2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KOBA 2014' 전시회는 문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개념 방송, 영상산업과 음향, 조명산업의 첨단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급격한 방송기술 변화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과 비전을 제시한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현업, SDF 등으로 바빠서 못 오신 사우 여러분을 위하여 'KOBA 2014' SBS 전시관을 소개한다.

이번 'KOBA 2014' 전시회에 우리 SBS는 'Contents & Solutions' 타이틀과 함께 차세대 방송인 UHD(Ultra High Definition), SBS의 앞서는 방송기술 및 브라질 월드컵을 주요 콘셉트로 준비하였다. 이 중 UHD 방송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나아가 할 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 SBS 또한 모든 시청자가 초고화질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OBA 2014' 전시회에서는 '화질은 4X, 감동은 ∞'의 제목으로 UHD방식으로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SBS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초고화질 영상만큼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특히 84인치 초대형 TV 2대를 활용한 SBS UHD 실험방송 On-Air 및 <별에서 온 그대> 등의 흡입력 있는 4K 콘텐츠 시연은 전시회 관람객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UHD-TV를 선도하는 SBS의 앞선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 중요한 자리였다.

이와 더불어 타방송사보다 앞선 뉴미디어기술을 보유한 우리 SBS에서는 'KOBA 2014' 전시회를 통해 초고화질 3DTV, IP망을 이용한 e-Commerce,

TPO(with WaterMark)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스마트시대에 더욱 발전된 Smart Hybrid DMB, 초정밀 GPS(RTK), OHTV 서비스와 드라마 속 시청자가 궁금해 하는 특수기법 장면을 소개하는 'Effect,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첨단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강구 이야기>와 <K팝스타> 등을 전시한 초고화질 3DTV 코너는 4K로 촬영한 좌안 및 우안 영상을 기반으로 3DTV를 구현한 것으로 기존 고화질 3DTV보다 더욱 스펙터클한 사실감으로 UHD-TV와 함께 전시 기간 내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KOBA 2014'에서 SBS는 브라질 월드컵 주관 방송사답게 월드컵을 상징하는 색깔과 조형물들로 전시 공간 일부를 꾸몄다. 수많은 축구 공들을 조형적으로 해석하여 부스에 배치한 것과 축구경기장 잔디를 형상화한 카펫 디자인은 관람객들에게 월드컵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SBS 월드컵 중계를 시청토록 Push(?)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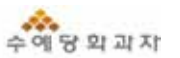
'바빠서 브라질 못 가는 시청자를 위해'라는 부제로 관람객과 함께한 'SBS 공포의 프리킥' 이벤트는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단연 SBS가 최고라는 인상과 더불어 '월드컵 채널, SBS'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Event인 SBS와 SBS 기술홍보를 위한 KOBA SBS Quiz는 단 시간 내에 'SBS' 구호를 KOBA 전시관 전체에 울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전시회와 함께 진행된 KOBA 컨퍼런스에서 SBS는 6명(SBS A&T 포함)이 강사로 나왔다. UHD 트렌드 및 제작기술, 자동송출 기술, 부조 운영기술, 워터마크 기술 등에 대해 발표를 하여 현업과 미래기술을 모두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전시, 이벤트 및 발표를 통해 KOBA 참여자들에게 앞선 기술력과 여흥을 선보인 이번 'KOBA 2014' 전시회는 우리 SBS가 방송 기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멀티플랫폼 도래에 대처할 방송기술인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수의 관람객이 이야기한 'SBS가 최고다'라는 표현들이 향후 SBS UHD-TV 본방송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KOBA 2014' 전시회에 사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에 큰 감사를 드린다.



8면은 사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고,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우 기고

일본 조명감독 초청 제작시연 후기

지난 4월 13~19일에 걸쳐 일본 NTV와 텔레비아사히에서 활약 중인 조명 감독 2명을 초청하여 시연회를 실시하였다.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녹화하는 방식 그대로 SBS 드라마 녹화 현장에 적용을 시도하여 조명 기법뿐만 아니라 녹화 현장의 다른 스태프들도 일본 녹화 방식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일본 조명 방식의 특징은 확산 광원을 사용하여 인물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부단한 시도와 실생활 속의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본의 드라마 녹화는 하루 10~15신 정도의 분량을 매 신마다 드라이리허설-카메라리허설-런스루-혼방의 과정을 통해 반복적인 조명 조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데 비해, SBS는 일일 드라마의 경우 하루 90신 정도의 분량을 녹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녹화를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이다. 일본의 경우 컷 방송 편집 시 스튜디오와 야외 스태프가 편집과정에 참여하며, 논의된 내용을 추후 제작에 반영하고 일정한 영상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도 접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드라마 제작은 주로 후반작업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프로세싱 체계로 운용된다.

SBS 드라마 영상의 개선 사항으로는 스튜디오 녹화 영상이 디테일이 강한 편이라 딱딱하게 표현되는데 일본의 경우 내장 소프트 필터를 사용하여 인물을 부드럽게 표현하며, 조명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세트가 전체적으로 밝고 인물의 콘트라스트가 떨어지며,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번 일본 조명감독 초청 직무 연수를 통해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차세대 UHD TV 제작시 조명 방안에 대한 질문

일본 NTV는 UHD TV 제작이 시작 단계에 있다. UHD TV와 HDTV의 조명 구상 방안의 큰 차이점은 없으며, 화면이 대형화 되고 디테일한 영상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므로 부드러운 확산광을 이용한 사실적인 조명 기법이어야 한다. 그림자 처리를 단순하고 사실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밀한 조명 기법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서 LED 조명기구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에서도 LED 조명기구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 결과 LED 광원이 드라마용 인물 광원으로는 품질이 낫다는 평가이며, 스튜디오에서 LED 조명기구의 사용은 LED 광 구현 기술이 높아져서 할로겐에 근접한 광원 질과 가격이 다운되어야 스튜디오 적용에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장비의 간편성으로 야외 촬영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명은 포인트이다.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감안하여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장인의식으로 각각의 SCENE에 따른 설정의 차별화를 통해 분위기를 창출하고 광질을 높여갈 수 있는 여지를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부문간 긴밀한 협업과 이해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성전략본부 제작리소스팀 이태희 부장



공연 · 전시

뮤지컬 헤드윅

기간 : 5월 13일(화)~9월 28일(일)
장소 : 삼성역 백암아트홀



금세기 최고의 스타일리시 록 뮤지컬 <헤드윅>이 돌아왔다. 이번이 아홉 번째 시즌이 되는 2014년의 '헤드윅' 역할은 조승우, 박건형, 손승원이, '이즈학' 역할은 이영미, 서문탁, 전해선, 최우리가 맡았다.

한국의 <헤드윅>은 2005년 초연이후 지금까지 전국 공연 통산 1,400여회 전석 기립, 수백 회의 전석 매진이라는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뮤지컬의 신화를 써왔다. 국내 중소극장 공연 역사상 최고의 객석 점유율과 최다 누적 관객 동원 뮤지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헤드윅>은 오리지널 프로덕션인 뉴욕을 포함하여 전세계 <헤드윅> 중 가장 많은 공연과 관객을 기록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헤드윅>으로 인정 받아왔다. 2014년을 끝으로 향후 당분간 만날 수 없는 한국 중소극장 뮤지컬의 신화 <헤드윅>은 삼성역 백암아트홀에서 5월 13일(화)부터 9월 28일(일)까지 공연한다.

서울재즈페스티벌

서울재즈페스티벌 201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월 16일 스페셜 오프닝 나이트를 시작으로 5/17, 5/18 양일간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서울재즈페스티벌에는 작년보다 3천여 명이 늘어난 3만 8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올해 8회를 맞은 서울재즈페스티벌은 블라인드 티켓 예매 때 1분 만에 매진되는 등 라인업에 구애 받지 않고 관객을 모을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키웠다. 올해 라인업 역시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데미안 라이스, 바우터 하멜, 잭 레드맨 트리오, 조슈아 레드맨 콰텟, 닐스 페터 몰베르, 에디 팔미에리, 에릭 베네, 손드르 레르케, 제이미 컬럼 등 세계 최고의 음악성을 자랑하는 뮤지션과 송영주 콰텟, 윤석철 트리오, 장기하와 얼굴들, 빈지노, 윤한 등의 국내 실력파들의 무대로 이뤄졌으며, 재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켰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NEW BOOK



SBS <최후의 권력> 제작팀 글 | 새로운현재 출판사
책 『권력이란 무엇인가』는 SBS 창사특집 대기록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의 탄생에서부터 21세기 현대권력에 이르는 인류 권력의 역사를 더욱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권력의 목적을 성찰하고, 진정성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 미래 권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 경조사 소식 |

- ❖ 축하합니다
 - 드라마본부 드라마지원팀 박선호 사원 결혼(5월 10일)
 - 보도본부 정치부 장선이 사원 결혼(5월 17일)
 - 보도본부 문화과학부 권란 사원 결혼(5월 23일)
 - 제작본부 예능3CP소속 한승호 사원 결혼(5월 24일)
- ❖ 애도합니다
 - 보도본부 스포츠부 이영주 사원 외조모상(5월 12일)
 - 송출기술팀 박영식 팀장 모친상(5월 15일)
 - 보도본부 스포츠부 김유석 부국장 부친상(5월 21일)
 - 윤리경영팀 이재완 팀장 빙부상(6월 2일)
 - 경영지원본부 공간혁신팀 이병희 팀장 모친상(6월 2일)
 - 드라마본부 김영섭 1EP 빙모상(6월 3일)